

전남개발공사, 섬박람회 성공 개최 응원...입장권 5억원 기부

공공기관 참여 확대...행사 붐 조성 기대 22개 시군 문화 취약계층 전량 지원 예정

전남개발공사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5억원 규모 입장권을 구매·기부하며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전남개발공사는 8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입장권 구매 및 기부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김중기 조직위 사무총

장, 김동국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박람회 성공과 지역 상생에 뜻을 모았다.

이번 약정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5억원 규모의 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 문화 취약계층에 전량 지원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정상이 대비 3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기부가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도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지역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며,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8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입장권 구매 및 기부 약정식을 개최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9일 병해충 예방단과 민간 전문가, 농업인 모니터링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 병해충 예방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병해충 예방 민·관 협력 강화...전남 선제 대응

예찰망 확대·주기 단축...현장 대응 강화 농업인 참여 400명 구축...감시 사각 해소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9일 병해충 예방단과 농업인, 농업인 모니터링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 병해충 예방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급변하고 외래 해충 유입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 행정 중심 예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민간 전문가와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예찰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예찰·관찰포는 기존 126개소에서 129개소로 확대하고, 예찰 주기는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여기에 수시 조사체계를 병행해 이상 징

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찰 인력도 기존 86명에서 111명으로 늘리고, 농업인 모니터링단 411명을 새롭게 구성해 현장 감시망을 대폭 보강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중 감시체계를 통해 병해충 발생 초기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토양경정 및 시비처방 기반 비료 사용 절감' 실천도 결의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자재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적정 시비와 과학적 영농을 통해 경영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구례 (주)목월빵집, 지역사회 나눔 실천

구례군은 최근 (주)목월빵집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빵을 기부하는 기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기탁된 빵은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으로 일상 속 작은 행복과 온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월빵집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

히 이어오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장종근 (주)목월빵집 대표이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탁을 마련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동명동-주민자치회, 'ACC 한바퀴 투어' 진행

마을예술축제 등 도보 점검 카페거리 골목 상권 연계도

광주 동명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마을예술축제를 위한 'ACC 한바퀴 투어'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골목 상권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ACC 주요 시설 투어를 통해 동명동 일대 도보 동선을 점검했다. 또 하반기 열릴 예정인 동명동 마을예술축제의 무대 배치와 소규모 공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정의 동명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투어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을에



광주 동명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마을예술축제를 위한 'ACC 한바퀴 투어'를 진행했다.

마을예술축제 등 도보 점검 카페거리 골목 상권 연계도

문화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동네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재능나눔·기부활동 앞장

주거환경 개선 봉사·성금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임직원의 전문성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공사는 8일 본사 대강당에서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개최하고, 임직원의 참여로 마련된 성금을 백혈병소아암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백혈병소아암후원회, 라이나생명, 한솔도시락과 함께 진행됐으며, 참여자 1인당 1만원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조성된 성금 전액은 소아암 환아 치료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후원회 홍보단원 배우 이상인씨가 참석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



공사는 8일 본사 대강당에서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개최하고, 임직원의 참여로 마련된 성금을 백혈병소아암후원회에 전달했다.

려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 25일 광산구 진곡동에서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재능나눔 봉사 활동도 실시했다. 이날 차량운영처 직원 10여 명이 청각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노후된 등기구와 콘센트 등 전기

시설을 교체하고,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봉사에는 전 광주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과 (사)하남초사랑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해 집 안무의 생활폐기물을 정리하는 등 힘을 보태며 의미를 더했다.

양동민 기자

게시판

결론 △김두한(화순군 산림과장)·윤영경씨 장남 김인호(완도군청) 군, 오백만(전 광주공고 교사)·이계순(전 장성군청) 씨 차녀 오연주(전남도청) 양=11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삼부대로 글로리아에딩홀 1층 라비야홀.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시니어무협동조합 사회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서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서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시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은세 (음력 2월 23일)

- 48년생 기본 상해도 찾아야 후회 없다
- 60년생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 72년생 늦었다고 생각 말고 다음을 준비해라
- 84년생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 96년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51년생 체면을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 63년생 시대에 부합한 일은 기대하지 마라
- 75년생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 87년생 배우자와 불화가 생겨 갈등을 겪겠다
- 99년생 이성에 대해 부당한 일 이뤄지지 않는다
- 54년생 주변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 66년생 구분을 해줘야 한다
- 78년생 문서 운세가 좋지 않다
- 90년생 필연적인 관계이다
- 57년생 시작과 끝이 분명하니 헤매지 마라
- 69년생 별문제 없는데 가족들 반대가 심하다
- 81년생 이사 기쁜 일은 재물 들어 온다
- 93년생 옳은 일은 반드시 주위에서 돕는다
- 49년생 말단 직원의 말을 들어라
- 61년생 속 사정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 73년생 제대로 실행 한다면 결과가 실속이다
- 85년생 남부리지 말고 다음을 위해 아껴 두라
- 97년생 이성으로 인한 근심수가 있다
- 52년생 사소한 한마디에 중대한 일을 놓친다
- 64년생 시속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76년생 상수 거점을 마련하는 전향이다
- 88년생 문서와 명제가 함께 하겠다
- 55년생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 67년생 현상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 79년생 무모한 일을 벌이면 어려움을 겪는다
- 91년생 이직이나 취직 등은 어려운 운
- 58년생 주위와 갈등은 배우자와 상의해 결정
- 70년생 부동산 거래는 절대 안 되니 단념하라
- 82년생 친한 사이라도 비밀을 발설치 마라
- 94년생 혼자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 50년생 건강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62년생 원하는 사업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다
- 74년생 거처를 분점으로 송사까지 확대된다
- 86년생 지나친 집착은 대국을 망칠 수 있다
- 98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 것이다
- 53년생 여자하고 언쟁을 삼가하라
- 65년생 욕심은 좋지만 휴식이 필요하다
- 77년생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 89년생 스스로를 다스려라
- 56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라
- 68년생 끝내 이뤄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 80년생 벼락 치게 서둘러야 겨우 이뤄낸다
- 92년생 빨리 마음을 다잡고 착실하게 살아라
- 59년생 초심하는 수호하고 반영하는 것이 낫다
- 71년생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 83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성공한다
- 95년생 데이트 가는데 친구와 동행하지 마라